

'정읍사 망부석' 정확한 위치는 어디까

1936년 '정읍군지' 망부석 위치 묘사... 이후 기록은 답사 후 확인까지
'동여비고'는 동국승지여람 참고한 개인 지도... 과거 망월사 설화 오인 추정

고지도도를 근거로 '백제가요 정읍사' 여인 '망부석'의 위치가 구체화 되는 듯했으나 "제시된 고지도도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이 문헌 자료를 근거로 제기됐다.

특히 이번에 제시된 자료들은 지도기반의 근거가 아닌 '동국승지여람'으로부터 파생되며 이어져 온 문헌상의 기록과 그 기록의 합리적 해석이 바탕이라는 점에 추후 논란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15일 전북 정읍역사문화연구소 김재영 이사장은 뉴시스 통신사와 인터뷰에서 "1914년 일제가 인구와 면적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한 후에야 정읍과 고부가 한 행정구역이 됐다"며 "백제가요 정읍사에서 유래된 망부석 여인의 바탕이 고부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1914년 이전 왕조시대에는 강과 하천, 또는 산을 따라 행정구역을 나눴고 정읍과 고부 역시 동진강을 사이에 두고 정읍평과 고부평이 나뉘었다"며 "백제가요 정읍(정읍사의 본명칭)을 고부에 편입하는 것은 역사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동국승지여람'에 기록돼 다른 사료들까지 이어져 온 '재현복십리(在縣北十里·관정으로부터 북쪽 10리)'의 망부석은 현재의 정읍시 하북동과 북면 승부리의 경계인 월봉산 인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1936년에 발행된 '정읍군지'에서는 망부석의 위치를 비교적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1959년에 제작된 '고장생활(정읍편)'에는 정읍군지에 묘사된 곳을 찾아가 망부석의 위치까지 확인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김 이사장이 제시한 '고장생활'에는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망부석 위치가 정읍군



정읍역사문화연구소 김재영 이사장이 1936년 발행된 '정읍군지'에서 망부석의 위치가 묘사·기록된 부분을 찾아 설명하고 있다.

지의 묘사와 동일하게 표기돼 있으며 선조들이 망부석 자리를 세워놓은 표기석까지 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고장생활은 정보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편찬자들이 현장 답사는 물론 그 시절 생존해 있던 학자들의 지문까지 구해 스스로 많은 검증을 거쳤다는 내용도 있다.

김 이사장은 "여러 문헌자료들이 있지만 시

대적 상황에 맞게 고려해 해석한다면 대부분의 지료들이 설명하는 망부석의 위치가 정읍군지 및 고장생활에서 밝힌 위치와 동일하다는 결론에 이른다"고 전했다.

이어 "왕명에 따라 쓰여진 동국승지여람을 참고해 정경흠이란 분이 제작한 '동여비고'는 동적인 활동을 통해 제작된 지도라 보기 어려워 김정호가 전국 누비며 만들었던 '대동여지도'와는 결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정경흠은 동국승지여람이 편찬된 후 200년이 지나 동국승지여람의 내용을 지도로 옮긴 것일 뿐 정확한 위치의 검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동여비고 상의 정보만으로 망부석의 위치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동여비고가 사찰의 정보를 많이 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정경흠이 과거 두승산에 있었다는 망월사 설화와 혼동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정읍시의회 이도형 의원은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망부석의 위치가 표기된 '동여비고' 등 고지도도를 발견했다"며 "지도상으로는 망부석의 위치가 현재의 정읍시 고부면 두승산 일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읍시여인 망부석은 행상을 나간 남편을 걱정하며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다 굶어진 돌을 말하며 여인의 애절한 사랑이야기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가요 '백제가요 정읍사'로 전해진다.

하지만 백제시대부터 이어져 너무 오랜 세월을 가진 터라 그동안 망부석의 정확한 위치를 특정하기 어려워 논란이 이는 등 애를 먹고 있다.

/뉴시스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 '공존의 인간학' 학술지 제5집 발간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이 '공존의 인간학' 학술지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2019년 2월 28일 창간호를 시작으로 연 2회씩 발간, 현재 제5집째 출간했다.

'공존의 인간학' 제5집에서는 '유교적인 것의 현재적 소환과 그 의미'라는 주제의 기획논문 3편과 일반논문 4편 등 총 7편의 논문이 게재됐다.

기획논문으로는 전남대 인문학연구원 장복동 HK연구교수의 '유교윤리의 사회통합적 가능성과 한계', 한성대 상상력교양대학 임정호 조교수의 '주생전(周生傳)에 나타난 예절된 민남과 이별·작품을 통해(統御)하는 유교 철학을 중심으로', 중국 화동사범대(華東師範大學校) 중어중문학과 위강(魏綱) 교수의 '소농경제에 대한 새로운

이해·왕정치(王曾祺)의 수계(受戒)를 중심으로'가 채택됐다.

일반논문으로는 목포대 중국언어어문학과 학과 임춘성 교수의 '포스트식민 번역연구와 레이 초우의 문화 간 번역'과 한양대 함춘명 연구교수의 '식민지 조선 발생영화에 대한 감동론적 고찰·방한준의 1930년대 연출작을 중심으로'와 한양대사학회 현명철 회장의 '조일수호조규와 표류민 송환의 변화와 히토츠바시(一橋)대학 한국학연구소 이규수 교수의 '관동대진재와 한인 학살·그 망각과 기억의 소환'이 선정됐다.

한편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에서는 '공존의 인간학' 제6집에 게재할 원고를 모집 중이다.

/장은성기자

문화도시 익산 조성 위해 시민 아이디어 모은다

시민 이야기 주간 '삼삼오오 시즌 2' 참가자 22일부터 모집

익산시는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와 아이디어를 토대로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시는 문화도시 익산 조성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 지에 대한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시민 이야기 주간 '삼삼오오 시즌 2' 참가자를 오는 22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진행되는 '삼삼오오 시즌 2'는 익산문화도시사업단과 익산희망연대가 함께 진행하는 연계협력 사업으로 문화도시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5명 이상 7명 이내로 소모임을 구성하고 원

하는 일시와 장소를 정해 토론한 결과를 제출하면 된다.

'삼삼오오 시즌 2'는 50개 이야기 소모임을 모집할 예정이며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시민이야기 주간으로 진행된다.

이야기 소모임에는 모임 운영비와 이야기 도구를 제공하며 토론 촉진자도 파견한다.

특히 이번 시즌 2에서는 직접 실행 가능한 사업을 제안한 소모임 20개를 선정해 최대 200만원에서 최소 50만원까지 실행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은 오는 22일부터 익산문화도시사업단 공식 홈페이지와 익산 희망연

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희망연대 시민교육센터(063-841-794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 이야기주간 삼삼오오는 문화도시 시민 참여 플랫폼으로 시민 의견 수렴과 시민공동체 발굴을 위해 시즌2로 야심차게 준비했다"며 "많은 시민이 참여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익산을 위한 즐겁고 유쾌한 대화의 장을 만들어 달라"고 밝혔다.

문화도시의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국가에서 지정한 도시를 말한다.

익산시는 지난해 12월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돼 올해 1년 동안 예비사업을 추진 후 연말 평가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3차 법정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

/익산=장영원 기자

군산예술의전당, 국립합창단 공연 유치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국공립예술단체 우수공연 공모 선정

군산예술의전당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2021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국공립예술단체 우수공연 공모에 선정돼 국내 최고의 기량을 자랑하는 국립합창단의 대표 레파토리 '영화음악 여행' 공연을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 무대에 올린다.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은 수준 높은 문화예술의 나눔을 통해 문예회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문화수준을 향상시켜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고자 진행되는 사업으로 시는 작품비 5,500만원 중 60%를 지원받게 되며 오는 6월 16일 공연 유치를 확정했다.

국립합창단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수준을 인정받으며 르네상스부터 현대에 이르는

합창음악의 폭넓은 레파토리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합창단으로 군산공연에서는 합창과 오케스트라와 함께 100여명이 펼치는 웅장하고 화려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군산 공연에서는 영화음악에 의한 합창, 애니메이션에 의한 합창, 뮤지컬에 의한 합창 총 3가지 곡선으로 나눠 진행되며 우리 귀에 친숙한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 모음곡', '겨울 왕국', '지킬 앤 하이드' 등 정연령층이 사랑하는 흥겨운 곡들로 풍성하게 준비하고 있으며 또한 문화 사각지대가 없도록 소외계층 초청 기회를 마련하여 많은 시민들의 관람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군산=남현봉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 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aum, NAVER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